

電力事業의 部門別現況과 主要事業計劃



金 永 文

韓國電力公社 水火電力建設事業團長

1. 개 요

우리나라의 전력사업은 70년대
의 두차케에 걸친 석유파동의 여
파로 국내산업의 위축과 전력수
요의 성장둔화를 가져 왔으며 이
로 인해 80년대 중반기에는 전력
예비율이 한때 60%를 상회하게
되었다. 이에 따라 장기 전력수
급계획의 축소로 발전소 건설공
사를 지연시킨 경우도 있었다.

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는 경
제성장과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
향상으로 당초 예상 수요성장률
인 9~10%를 훨씬 웃도는 14~
16%의 성장을 계속하여 최근의
전력예비율은 5~7% 정도의
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, 이
러한 현상은 앞으로 2~3년간
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
재 건설중인 발전소의 차질없는
추진이 최대 관건으로 부각되고
있다.

2. 건설추진현황 및 계획

현재 한전에서는 '90년 12월 잠
정 확정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
'93년도까지 준공될 발전소 건설
업무를 단기전력수급계획(표 3)
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
으며, 한전 주체로 건설중이거나
건설준비 단계에 있는 수화력발
전소의 현황은 표 4와 같다.

발전원별로 건설추진현황을 간
략히 정리해 보면, 수력발전설비

중 강릉수력(41MW×2기)은 이
미 1호기를 지난 해 12월말부터,
2호기를 금년 1월말부터 상업운
전을 개시하여 현재 발전중에 있
으며, 무주 양수(300MW×2기)
는 '9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약
35%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
게 건설되고 있다.

또한 화력발전설비는 500MW
급을 주종으로 건설을 추진하고
있어 보령화력 3, 4, 5, 6호기와
삼천포화력 3, 4호기는 '93년과
'94년내에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
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, 태
안화력 1, 2호기는 금년 9월, 하
동화력 1, 2호기는 '92년 9월
에 각각 착공하기 위해 용지매수
와 대관 인허가업무에 박차를 가
하고 있다. 한편, 당진화력 1, 2
호기도 '94년 착공을 위해 설계
업무와 용도지역변경 협의 등 건
설준비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
있다.

특히 '92년 상반기 전력공급을
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일도북합
화력 1, 2단계(940MW×2기)역
시 가스터빈은 '92년 6월말, 스
팀터빈은 '92년말 준공목표를 단
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
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 정부의
신도시건설과 연계되어 있는 안
양·분당, 일산·부천 열병합발전
소도 '93년도 준공을 목표로 본
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또한 제주도의 전력수급 안정
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남제주내
연 3, 4호기(10MW×2기) 사업
은 금년 11월말과 내년 2월말준
공을 목표로 잘 추진되고 있다.

아울러 전력수요의 급격한 신
장에 따라 전원개발사업도 대폭
확대될 전망으로서 2001년까지 약
20,000MW에 달하는 수·화력발
전소를 신규로 건설해야 하는 것
으로 계획되어 있는데, 이는 1990
년말 총 설비용량과 맞먹는 물량
이다. 이러한 발전설비의 추가건
설 계획량은 500MW급에 해당하
는 대용량 화력발전소를 매년 4
기씩 건설해야만 하는 엄청난 사
업량으로서 막대한 투자재원과 전
원입지, 그리고 건설인력의 확보
는 물론 건설기자재가 적기에 조
달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
하여야 할 것이다.

이와 같이 발전소 건설사업이
동시에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
라 발전소 건설여건은 과거 어느
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으로서, 공
기준수 및 품질확보면에서도 어
려움이 예상되나 지금까지의 발
전소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한 철
저한 사업관리와 신공법 및 최선
장비의 동원 등을 통하여 공기준
수는 물론 품질확보와 환경 보전
측면에서도 완벽을 기하도록 노
력할 것이다.

표 3. 4 23p 참조